

## 특 집

'89 낙농육우산업을  
결산한다.

## 육 우 편

# 쇠고기 · 송아지 가격안정대 조기 도입돼야

이 근 상

축산시험장 육우과장

### 1. 머리말

'89년 도의 한우사육과 우리나라의 육우산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불안한 한 해 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번 경험하였던 바 있지만 소사육 두수의 격감으로 국내의 쇠고기 수요공급을 위하여 값싼 외국산 쇠고기의 다량 수입과 공급으로 인하여 또 한차례 한우의 가격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폭락되거나 않을까 하는 불안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예상과는 달리 산지의 소값은 비교적 큰 변동없이 좋은 값을 유지해 오고는 있었으나 '89년에는 국내산 쇠고기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5만톤이나 수입해 왔으나 쇠고기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이 어느 품목보다도 날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품종이기는 하지만 육용우로서의 산육능력은 몹시 낮은편이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모든 소사육 여건이 좋지 않아 송아지나 쇠고기의 생산비가 외국에 비하여 몹시 비싸므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가운데 앞으로는 더 많은 값싼 수입쇠고기가 수입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는 소와 쇠고기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 방안을 세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욱이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쇠고기 수입만은 우리나라의 육우산업 형편을 고려하여 끝까지 부족되는 물량한도 안에서의 쿼터제 방식으로 수입대처 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공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세우는데 중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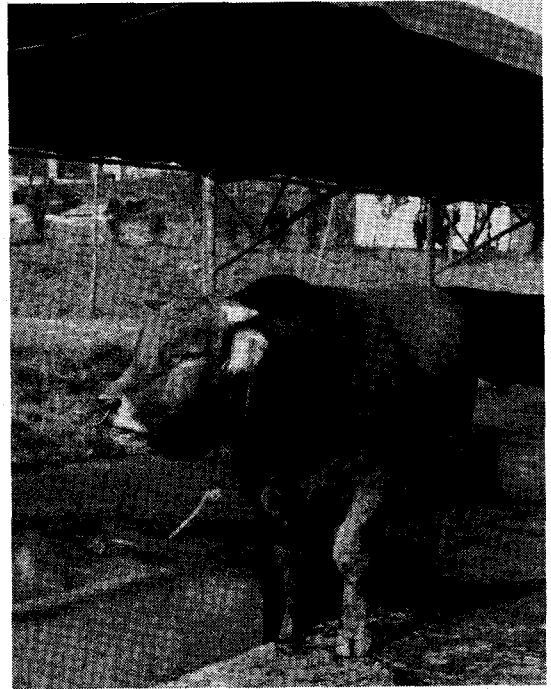
모아 부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한해를 넘기면서 내년을 위하여 '89년도의 한육우 사육두수나 규모의 변동 등 사육기반 실상을 비롯하여 산지의 소값과 쇠고기의 가격동향 그리고 쇠고기의 수급과 쇠고기의 수입실태 등 당면한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몇가지 소견을 생각나는 대로 제시해보려고 한다.

## 2. 한육우의 사육동향과 사육기반의 실상

한육우의 사육동향을 우선 살펴보면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급격히 변동되어 85년도로만 하여도 <표 1>에서와 같이 255여만두나 되었던 것이 소값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여 소값 상승 방안으로서 중암소의 수매 정책을 펴서 3년 만인 88년도에는 약 100만두가 줄어든 약 156만두까지 격감 되었으나 '89년도에는 큰 변화는 없던 한해였다.

다만 3월말에는 약151만두까지 감소되었다가 9월말에는 162만두로서 160만두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육기반이 몹시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한육우의 사육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서 85년도에 약 105만호이었던 것이 88년말에는 약 70만호로 격감되었고 89년도에 들어와서도 계속 감소되어



9월말 현재 66만호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음은 주목되는 일이다. 그리고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2.4두로 다소 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1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2~3% 수준이고 1~2두 사육농가수가 아직도 80% 이상으로서 아주 영세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해 볼점은 흔히들 한육우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사육규모의 확대를 쉽게 말

<표 1> 최근의 한육우 사육두수와 규모

구 분	총사육 두 수	사 육 호 수	호당평 균두수	규모별사육호수(%)				젖소 사육두수
				1~2	3~4	5~9	10두이상	
85	2,553	1,048	2.4	74	16	8	2	390
87	1,923	854	2.3	82	11	5	2	463
88(6)	1,729	781	2.2	83	10	5	2	475
88(12)	1,559	702	2.2	84	9	5	2	480
89(6)	1,573	670	2.4	84	9	5	2	497
89(9)	1,621	662	2.5	80	12	5	3	515

하지만 한육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는 당분간만이라도 1~2두를 사육하는 영세적인 사육 농가를 어떻게 보호육성할 것인가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육우는 영세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목돈 마련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산지 소값과 쇠고기 값의 동향

한육우나 쇠고기값은 일반적으로 소의 사육두수나 쇠고기의 수요량에 따라 크게 변동되고 있으나 최근의 산지 소값이나 쇠고기 값의 동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400kg인 큰 소값은 '86년도 말에는 100만원미만이었으나 87년도부터는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여 88년도 하반기부터 외국산 쇠고기를 일부 수입방출도 하였으나 180만원선까지 상승하였고 '89년도에도 더 많은 물량의 쇠고기를 수입 방출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들어서서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9월에도 170만원 수준이고 최근에도 165만원 수준으로 보합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송아지 값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되어 수송아지의 경우 '86년도 37만6천원 하던 것이 88년도

말에는 81만7천원으로 올라갔고 '89년도 6월에는 108만여원으로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도 105만 내외로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암소나 암송아지 값도 수소나 수송아지 값에 비하여 볼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특징적이겠지만 비교적 좋은 값을 유지하고 있음은 양축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몰가측면에서 본다면 더 떨어지는 것이 소값이 안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양축가의 입장에서 송아지값을 예를 들어 볼때 비육농가와 번식우농가 사이에서도 역시 적정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가 현격한 것을 엿볼수 있다.

아무튼 소값은 큰소가 되었던 송아지가 되었던 값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지 말고 안정적이어야 되며 바라옵기는 88년도부터 시도하였던 쇠고기 가격안정대와 더 나아가서 송아지까지의 가격안정대 사업이 조기 도입 정착되어 소값의 등락에 대한 불안심이 말소되는 일이다. 더욱이 값싸게 도입하는 쇠고기의 방출가격도 이런 점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한편 쇠고기의 소비자가격동향을 보면 소비자가격은 언제나 산지 소값이나 지육가격에 의한 연동체가 정착되어야 되겠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표 2> 한육우의 산지 소값과 쇠고기 값

구 분	큰소(400kg)		송아지(3~4개월)		쇠고기	
	♂	♀	♂	♀	지 육	정 육
86(12)	941	746	376	224	3,352	2,985
87(12)	1,015	877	489	310	3,974	3,208
88(3)	1,296	1,102	555	365	5,071	3,664
(6)	1,378	1,192	649	447	5,360	4,012
(9)	1,462	1,266	700	476	5,915	4,300
(12)	1,778	1,563	817	594	6,682	4,789
89(3)	1,798	1,664	1,011	727	6,474	5,064
(6)	1,762	1,595	1,082	778	6,117	5,252
(9)	1,696	1,521	1,047	726	6,223	5,282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 값의 2중 가격제를 실시하여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수입 쇠고기가 값비싼 한우쇠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으나 이러한 보도는 거짓이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있다면 강력한 단속으로 하루속히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쇠고기의 수급과 수입쇠고기의 방출

우리가 맛있게 먹고있는 쇠고기의 연간 총수요량은 국민의 경제성장 뿐만아니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증가분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것은 육우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2~3년간의 쇠고기의 연간 총수량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소비경향을 보면 87년도 이후에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89년도의 수요 추정량도 매우 적게 잡고 있다. 특히 88년 이후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된다.

최근의 쇠고기 수급과 국민 1인당 소비 동향을 좀 더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우선 연간 쇠고기의 총수요량은 87년도에는 약 152천톤으로서 전량 국내산으로 충당 자급하면서 국민1인당 쇠고기의 소비량도 3.6kg나 되어 가장 많은 해 이었다.

그러나 '88년도에는 소 사육두수의 격감으로 국내산만으로는 쇠고기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하반기에 14,5천톤의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여 그 중에서 9천여톤을 충당하였으나 1인당 쇠고기의 소비량은 3.4kg로 감소되면서 연간 총 수요량도 약 142천톤으로 감소되었고 자급율은 93.4% 수준이었다. 그러나 '89년도에는 쇠고기값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량 감축이 예상되어 1인당 쇠고기 소비량도 3.2kg로까지 낮게 잡고 총수요량도 전년도보다 더 적은 139천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89년도의 수급계획을 보면 수입쇠고기량을 대폭늘려 당초의 39천톤보다 훨씬 많은 50천톤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내



<표 3> 쇠고기의 수급과 소비 동향

구 분	쇠고기 수급량				국민1인당 소비량			
	총 량	국내산	수입량	자급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계
'86	147.9	44.3	3.6	97.6	3.6	7.7	3.1	14.4
'87	151.9	151.9	-	100.0	3.6	8.9	3.2	15.8
'88	141.5	132.2	9.3	93.4	3.4	10.1	3.5	17.0
'89	139.0	89.0	50.0	64.0	3.2	11.0	3.7	17.9

산 쇠고기의 자급율도 불과 64% 수준으로까지 낮게 잡고 있음에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쇠고기의 부족량 만큼의 쿼터제 방식으로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부족되는 쇠고기의 전량을 값싼 쇠고기만으로 쉽게 충당하려는 단일한 시책만을 쓸 때는 결코 가격면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아주 낮은 한우 사육은 절망적이고 우리나라의 육우산업도 발전해 나갈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에서는 현시점에서 빨리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은 최소한도 선이라도 분명히 제시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증산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5.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은 값싼 외국산의 쇠고기가 수입되어 시판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차원에도 쇠고기의 수입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육우산업의 앞날을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하면서 쇠고기의 수입개방만을 지연 또는 제지해 보려고는 하고 있으나 결국은 머지 않아 쇠고기의 수입개방도 예상되는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긴박하고도 냉혹한 현실속에서도 절대로 근심과 걱정만을 하면서 좌절할 수도 없고 한우사육을 포기할 수도 없다고 본다. 한우는 우리나라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우산업의 주종이 되며 아직까지도 영세농가의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대응방안을 찾아보고 더욱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할때라고 본다.

물론 한우가 이땅에 살아남고 육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전국에 산재되어 소를 키우고 있는 약 70만 농가에 대한 소사육의 의욕고취가 시급한바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긴급대책안을 제시하고 또한 소나 쇠고기의 확고한 가격안정대책

을 수립하여 일사불란하게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작성중인 축산업의 장기발전계획 등도 빨리 확정지어 발표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여야 된다고 본다.

한편 한우사육과 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방향도 한우의 산육능력 향상과 육질의 고급화 그리고 송아지나 쇠고기의 생산비 절감이라는 대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며너서도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결정하여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됨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리고 한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우개량 사업은 당연히 현재의 체제하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한우의 집단능력 개량에 주력하여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한우개량단지 수만을 확장하면서 전국의 한우를 모두 순종한우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방향에서 이제부터라도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의 보존과 순종한우의 보호법 제정 등에 의한 한우 보호대책을 서둘러 세워놓고 한편으로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육우사업의 발전과 양축농가의 실익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선진 외국과 같이 순종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교잡종이나 실용축생산의 길도 열어주는 방안도 재 검토해 보아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다.

한편 한우 쇠고기의 고급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은 양질 쇠고기의 생산 기술확립을 위한 시험 연구도 시급한 일일겠지만 본인은 이보다도 한우나 육우에 대한 도체등급기준 설정과 쇠고기의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한 도체등급에 따른 가격보장제도가 선행되어야 됨을 주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양질육을 생산하려면 현단계로서도 10% 내외의 증체가 떨어진다는 거세비육이라든가 성장단계별로 적정 사양을 하면서 비육기간의 연장이나 출하 체중의 증대 등으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생산

비가 훨씬 더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연히 생산비용에 대한 보상과 가격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송아지나 쇠고기의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는 역시 정책적인 많은 배려도 있어야 되지만 양측 가 스스로도 먼저 적정사양과 사육환경개선 그리고 값싼 양질조사료의 최대 증산이용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과 정보수집, 정확한 수익성의 분석이나 경영진 단 등에 의한 경영개선 등에 의한 생산능력의 최대 발휘 등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다.

## 6. 맺는말

이상에서 '89년도의 우리나라 한우사육과 육우산 업에 대한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머지않 아 쇠고기의 수입개방도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 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몇가지 점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단편적이거나 기술해 보았다.

물론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든 사 람들이 충지를 모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보다 많이 찾아내고 계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 라고 본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이 현재의 한우 사육농가에 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의 새해 육우산업 발전에 기여가 되기만을 바라면서 글을 맺는 바이다.

우유 소비 홍보 캠페인

40대 성인병,

우유로 예방하자!